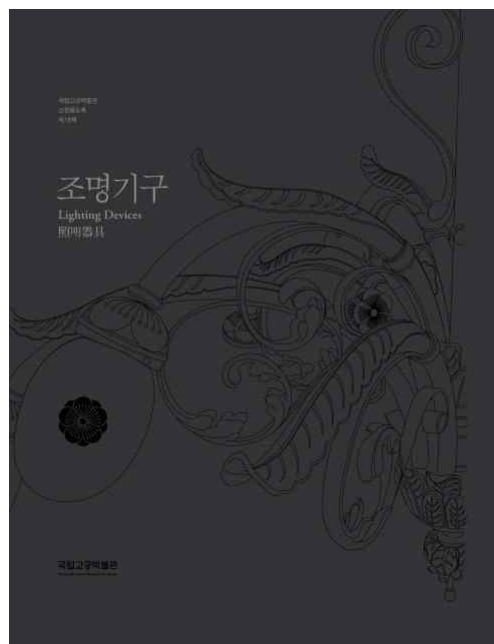


(붙임)

사 진 자 료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도록 제18책 『조명기구』 >



< 『조명기구』 앞표지 >



화유옹주묘 출토품

화유옹주묘 출토 등잔대

燈臺

조선, 청동, 지름: 9.9cm, 높이: 21.8cm

영조(英祖, 1694~1776년, 재위 1724~1776년)의 열 번째 딸 화유옹주(和柔翁主, 1740~1777년)와 부마 황인점(黃仁點, 1732~1802년)의 합장묘 출토품으로, 벽에 걸어 사용하는 등잔대이다. 기둥 가운데에 등잔받이를 접합시키고 그 아래에는 기름 찌꺼기를 받을 수 있는 기름받이를 놓았다. 등잔은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고, 별도 작은 등잔 안에는 기름이 굳은 것으로 보이는 유기물이 담겨있다. 하단 기름받이는 위쪽의 등받이보다 둘레가 약간 넓고 가장자리에 일정한 깊이의 턱이 둘러져 있어 떨어지는 기름 찌꺼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기둥의 상단부 양쪽에는 새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양이 장식되었고, 안쪽은 오목하게 만들어져 벽에 걸어두었을 때 고정되도록 하였다.



이화문 상들리에

李花文二段多燈式掛燈

미국, 20세기 초,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금속, 폭: 137.5cm, 높이: 99.0cm

전등 가지에 이화문이 부조된 장식이 달리고 각 등갓 홀더마다 이화 꽃잎이 묘사되어 있는 2단 대형 상들리에다. 로코코(Rococo) 양식의 디자인이며, 가지 위아래로 긴 잎과 줄기가 덩굴처럼 감싸고 있어 전체적으로 방사형 형태이다. 가지 줄기의 이화문 장식에는 꽃잎 5장에 꽃술 35개가 있으며, 등갓 홀더의 이화문에는 25개 꽃술이 있다. 여러 가지 소켓이 혼용되어 있는 가운데 ‘50 CP. 250 VOLTS GENERAL ELECTRIC. CO.’ 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 확인된다. 이는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에서 1900~19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상들리에의 제작연도 또한 이 시기로 추측된다. 표면에는 금색의 도료를 바른 흔적이 있다.



이화문 타원형 등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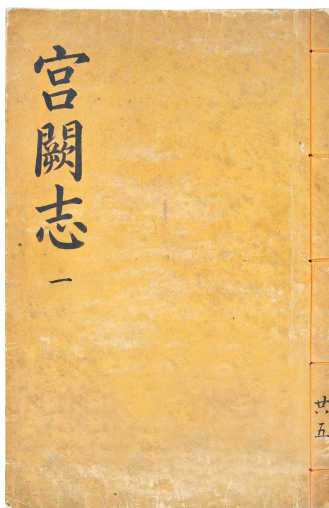
李花文橢圓形燈笠

일본, 20세기 초, 시마다유리제조소[島田硝子製造所], 유리, 입지름: 8.5cm, 높이: 16.0cm

일본 시마다유리제조소[島田硝子製造所]에서 제작한 타원형의 녹색 유리 등갓이다. 표면에 회사명 가운데 ‘田’자로 도안화한 붉은색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몸체 세 곳에는 꽃술 25개가 있는 겹꽃 형태의 이화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창덕궁 인정전(仁政殿) 내부 장식에 사용된 이화문 유형과 동일하다. 꽃잎과 꽃밥을 제외한 표면은 반투명하게끔 산액(酸液)으로 부식시켜 점등 시 이화문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다. 궁궐 내외에서 사용되었던 유리 등갓 중 이화문이 새겨진 것은 모두 시마다유리제조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이화문 도안을 보내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량으로 유입되어 애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과 홍색의 타원형 등갓은 궁궐 내에서 단독 직부등으로 설치되거나 큰 전기 샹들리에에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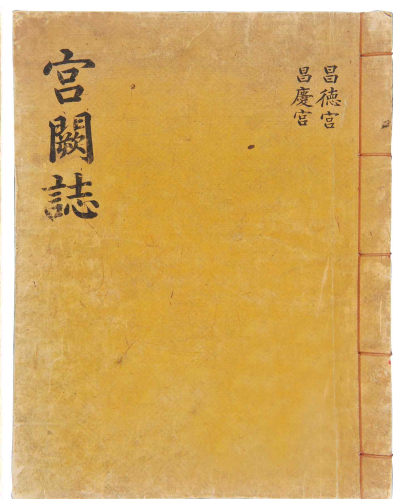
< 국립고궁박물관 고문헌국역총서 제12책 『궁궐지-숙종·고종 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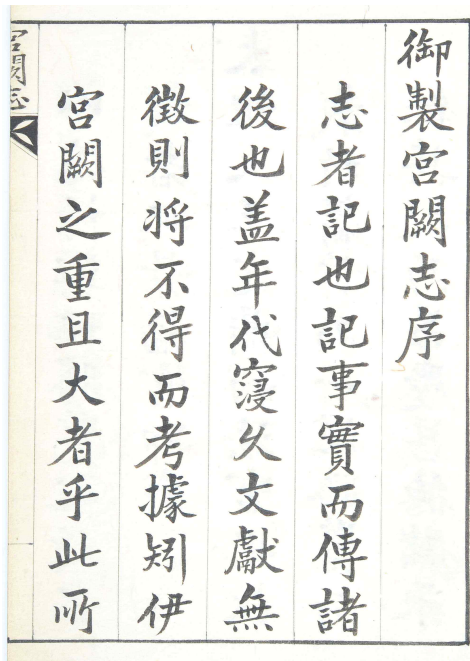
숙종 연간 『궁궐지』
(고궁2068-1)



고종 연간 『궁궐지』 (고궁2069-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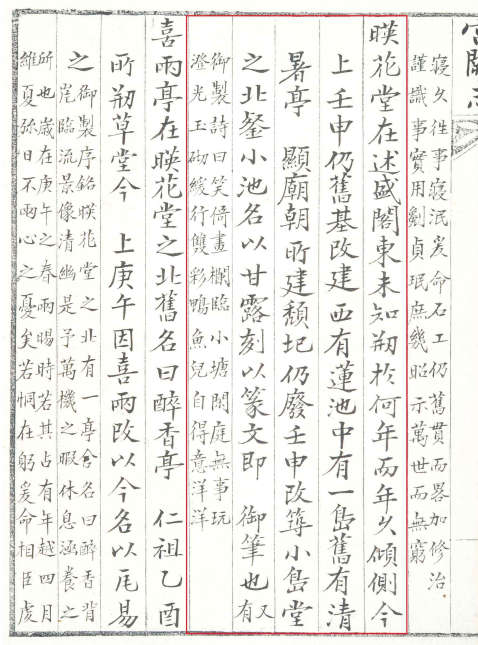


숙종 연간 『궁궐지』 원문 기사 발췌



‘어제 서문’ 중

지(志)는 기록이니,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대개 연대가 점점 오래되어 확인할 만한 문헌이 없으면 장차 사실을 상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궁궐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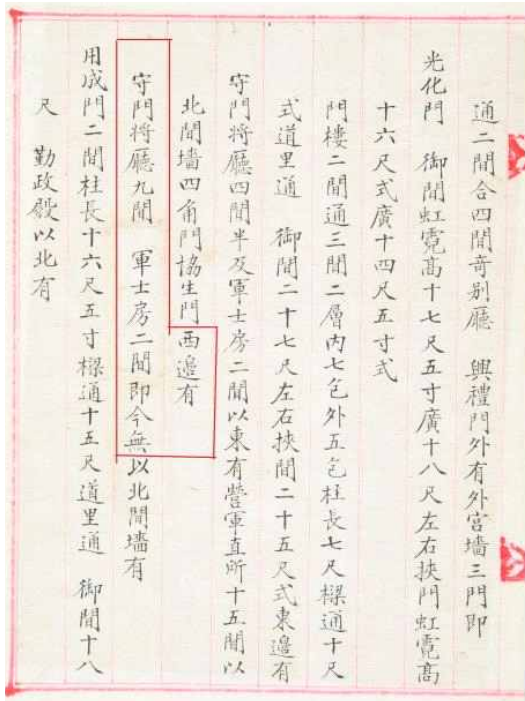
창덕궁 후원 ‘영화당’ 중 숙종 어제시

영화당은 숭성각 동쪽에 있다. 언제 창건하였는지 모른다. 세월이 오래 지나 기울어지자 금상 임신년(1692)에 옛 터에 새로 지었다. 서쪽에는 연지(蓮池)가 있고, 안에 섬 하나가 있다. 예전에는 청서정(淸暑亭)이 있었는데 현종 때 지은 것으로 무너지고 나서는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임신년에 작은 섬을 다시 쌓았다. 영화당 북쪽에 작은 못을 파서 감로(甘露)라고 이름하고 전자(篆字)로 새겼는데 숙종의 글씨이다.

【또 숙종의 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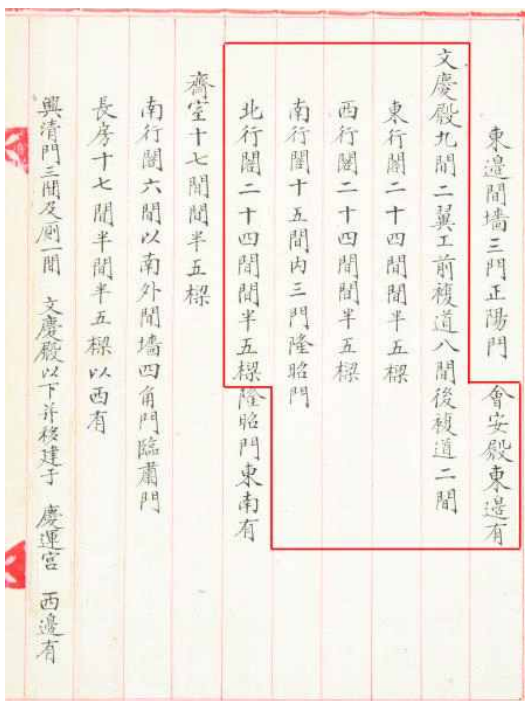
단청한 난간에 웃으며 기대 작은 연못 바라보며 일 없어 한가한 뜰에서 밝은 빛 완상하네. 섬돌에는 느릿하게 걷는 청동오리 한 쌍이요. 물고기는 편안하고 느긋하니 즐거운 모습이네.】

고종 연간 『궁궐지』 원문 기사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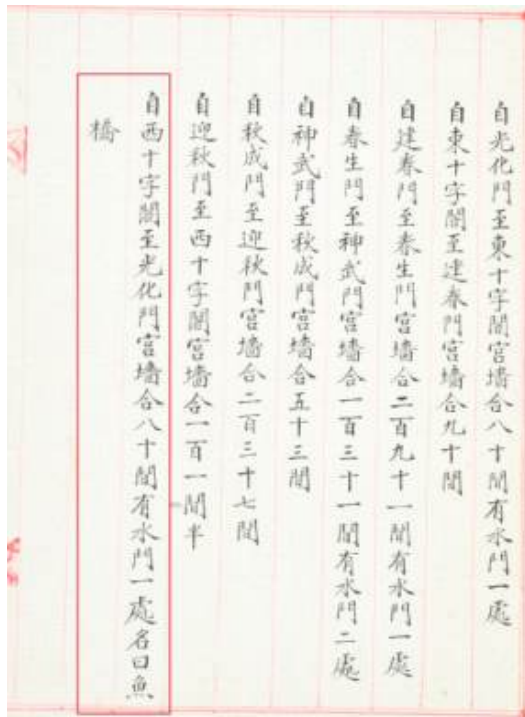
경복궁 광화문 서쪽 '수문장청' 부분

광화문 서쪽 부근에는 수문장청 9칸과 군사방 2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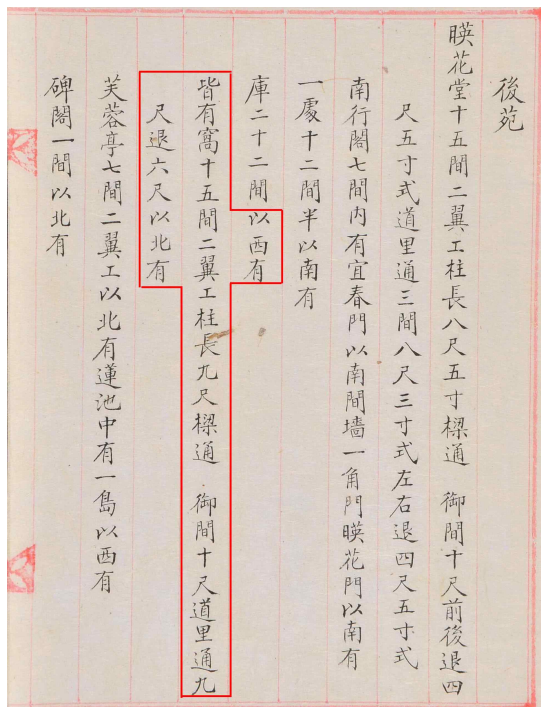
경복궁 '문경전' 부분

회안전 동편에는 문경전(文慶殿)이 있다. 9칸 이고 이익공이다. 전면의 복도는 8칸이고 (북행각과 연결되는) 후면의 복도는 2칸이다. 동행각은 24칸이고 측면은 1칸 반이며 오랑가이다. 서행각은 24칸이고 측면은 1칸 반이며 오랑가이다. 남행각은 25칸이고 삼문인 융소문(隆昭門)이 있다. 북행각은 24칸이고 측면은 1칸 반이며 오랑가이다.



경복궁 '서십자각' 부분

영추문부터 서십자각(西十字閣)까지 궁궐 담장은 도합 101칸 반이다. 서십자각부터 광화문(光化門)까지 궁궐 담장은 도합 80칸이고, 수문 1곳이 있는데, 이름은 어교(魚橋)이다.



창덕궁 후원 '개유와' 부분

영화당 서쪽에 개유와(皆有窩)가 있다. 15칸이고 이익공이며 기둥 길이는 9자이다. 양통은 여간은 10자이다. 도리통은 9자이고 뒷간은 6자이다.